대체거래소 재추진에 갈라진 여론… 환영 vs 반대

〈금융투자업계〉 〈KRX·부산지역〉

금융투자업계
"투자자 선택지 줘야… 활성화될 것"

KRX·부산지역
"불필요한 경쟁… 투자공백 우려"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송태화 수습기자

한국거래소(KRX)의 독점체제를 깨는 대체거래소(ATS)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대체거래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면 한국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주식시장 구조를 깨뜨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과 지방세수의 감소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팽하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대표되는 증권사는 힘을 모아 자체 자본금을 조성해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12월에 금융위에 예비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한 차례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되자 다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대형 증권사가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ATS 설립 추진에 서두르자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가증권,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등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가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거래소는 서울에 개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식시장에서 한국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면 부산금융중심지 위상 저하와 더불어 부산 지역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체거래소 설립 허가를 보류해야 한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질타했다. 주식거래 수수료가 적게는 69억원, 많게는 39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제출하며 "필연적으로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부산 남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 역시 대체거래소에 대해 반대 견해를 내비쳤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좁은 주식 시장에서 거래 수요를 두고 불필요한 소모적 경쟁을 할 우려가 있다"며 "매매체결이 완전히 전산화돼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를 대체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투자지수가 다양화 되는 등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줘야 한다.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찾아 나서는 투자자 덕에 불거진 경쟁이 금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위원도 대체거래소의 출범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연구위원은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완전한 경쟁 체제로 가는 것"이라며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경쟁 촉진에 의한 긍정적 효과들이 더 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나친 경쟁 체제로 거래 비용이 증가하거나 거래 안정성의 문제 등 부작용도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거래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에선 우리 금융 시스템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대체거래소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 경쟁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대체거래소가 출범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거래소 인가신청을 위해 구성된 TF에 참가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확한 출범 시기를 특정하긴 힘들다. 금융위 허가도 받아야 하고 사전에 시장 조사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귀띔했다.

/송태화 수습기자 alvin@metroseoul.co.kr

지하철역·마트 등 인접 핵심상권 오피스텔 분양 '러시'

자이S&D '건대입구역자이엘라'
총 315실… 백화점·마트 등 즐비

화성산업 대구 '죽전역 화성파크드림'
오피스텔·아파트 복합 총 144가구

한화건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조감도.

〈핵심상권 인접 10월 분양 신규 오피스텔〉

단지명	위치	총실	전용면적(㎡)	건설사
건대입구역자이엘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번지	315	18~84	자이 S&D
죽전역 화성파크드림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582-5번지	68	84	화성산업
힐스테이트 에코 안산중앙역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7-7, 8번지	702	20~57	현대건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전주시 덕진구 송촌동 2가 1313번지	203	84	한화건설

유동인구가 풍부한 핵심상권 인근에 오피스텔이 속속 분양에 나서고 있다. 핵심상권과 인접한 오피스텔은 마트나 영화관, 병원, 맛집 등이 몰려 있다. 또한 풍부한 유동인구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아 공실 위험이 적은 편이다.

실제로 대우건설이 지난 2월에 분양한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은 롯데백화점 건너편 홈플러스 부지에 들어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시네마, 이마트, 부천 로데오거리 등 핵심상권과 인접해 있는 입지를 갖춰 많은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최고 경쟁률 1451.75 대 1을 기록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오피스텔은 핵심 지역에서 공실 없이 매달 월세를 받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며 "오피스텔 투자의 핵심은 유동인구가 많은 입지,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20~30대 젊은층이 몰리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오피스텔로 GS건설 자회사인 자이S&D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 일대에 들어서는 '건대입구역자이엘라' 18~84㎡, 315실(오피스텔 일반분양 269실, 준공공임대 46실)을 분양 중이다. 건대입구역자이엘라가 들어서는 광진구 자양동 일대는 서울 동부권 최대 상업지역인 건대입구 상권이 형성돼 있다. 롯데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CGV, 로데오거리, 건대병원, 건대 커먼그라운드 등이 장점이다.

화성산업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에 들어서는 '죽전역 화성파크드림'을 분양 중이다. 대구지하철 2호선 죽전역과 용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도 가깝다. 복합단지로 전용 84㎡ 오피스텔 68가구와 전용면적 63~84㎡ 아파트 144가구다.

현대건설은 이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에코 안산중앙역' 20~57㎡, 702실을 분양한다. 안산시 중심 상권인 중앙역 인근에 위치해 단지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과 도보권에 뉴코아아울렛이 위치해 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안산중앙역 로데오 상권도 가깝다.

한화건설도 전북 전주에코시티 주상복합용지 1,2블록에서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84~172㎡ 아파트 614가구와 84㎡ 주거용 오피스텔 203실을 분양한다. 단지 바로 맞은편에 중심상업지구(예정)가 위치해 있고, 농수산물시장, 롯데마트, 메가월드, 전북대학교병원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증권 다이제스트

삼성증권
17일 리츠 투자전략 세미나

삼성증권은 오는 17일 전국 전 지점에서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투자전략 동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공모리츠를 중심으로 한 대체투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투자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이 세미나의 주제로 리츠를 선정한 것은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 되며 최근 리츠가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리츠는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 상품을 뜻한다.

/송태화 수습기자

하이투자증권
300억 규모 ELS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18일 오후 1시까지 총 300억원 규모의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공모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HI ELS 1961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톡스(EUROSTOXX)50 지수, 니케이(NIKKEI)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85%(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5.9%(연 5.3%)의 수익을 지급한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다.

/송태화 수습기자

금감원 "불법사금융 이렇게 대응 하세요"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보·상담사례 등을 정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는 지난 2001년 4일 출범 이후 19년간 검찰·경찰,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금감원은 그동안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보,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주요 유형별로 분류하고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대응요령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에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개요 및 상담절차 : 2001년 4월 신고센터 설립 이후 연혁 및 업무절차, 상담시스템 등 개요 ▲불법사금융 주요유형별 개념 :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유형별 개념 정리 등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 발간을 통해 날로 지능화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과정 운영

금융투자협회, 매월 교육과정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교육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의무과정을 지난 7월부터 매월 1회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총 284명이 수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7일 서울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 6월까지 부산에서 2차례 교육을 포함해 매월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해당 교육과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 등 기본지식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투자자보호관련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과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경우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및 부산 BIFC에서 진행된다. 교육의무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기존 유사투자문업 법인의 대표자이다. 그 외 임직원의 교육수강도 가능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